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23 주차 (11:7~11:37)

(2015년 6월 28일 - 2015년 7월 4일)

(제3권 23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23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6 월 28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http://www.b2bm.org)

####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sup>th</sup>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Progra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http://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죽음과 영생에 대한 이해 (주일)

### 오늘의 본문 (요 11:7~16)

7.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고로 실족하느니라
11.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르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2.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낮겠나이다 하더라
13.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줄 생각하는지라
14.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르가 죽었느니라
15.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16.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 원문해석하기

-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ἔπειτα μετὰ τοῦτο λέγει τοῖς μαθηταῖς·)  
우리가 다시 유대로 올라가자 (ἄγωμεν εἰς τὴν Ἰουδαίαν πόλιν.)
- (8절)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ουσιν αὐτῷ οἱ μαθηταί·)  
랍비여!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당신을 돌로 치기 위해 찾았습니다  
(ῥαββί, νῦν ἐζήτουν σε λιθάσαι οἱ Ἰουδαῖοι.)  
그런데 당신은 그곳으로 다시 가시려하십니까? (καὶ πόλιν ὑπάγεις ἐκεῖ.)
- (9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하루가 열두 시간이 아니냐? (οὐχὶ δώδεκα ὥραί εἰσιν τῆς ἡμέρας·)  
만약 어떤 이가 낮 동안 다닌다면 (ἐάν τις περιπατῇ ἐν τῇ ἡμέρᾳ.)  
그는 넘어지지 않는다 (οὐ προσκόπτει.)  
왜냐하면 그가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다 (ὅτι τὸ φῶς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 βλέπει.)
- (10절) 만약 어떤 이가 밤 동안 다닌다면 (ἐάν τις περιπατῇ ἐν τῇ νυκτί.)  
그는 넘어진다 (προσκόπτει.)  
왜냐하면 그 빛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ὅτι τὸ φῶς οὐκ ἔστιν ἐν αὐτῷ.)
- (11절) 그는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Ταῦτα εἶπεν, καὶ μετὰ τοῦτο λέγει αὐτοῖς·)  
나의 친구 나사르가 잠들었다 (Λάζαρος ὁ φίλος ἡμῶν κεκοίμηται·)  
그러나 그를 깨우기 위해 내가 간다 (ἀλλὰ πορεύομαι ἵνα ἐξυπνίσω αὐτόν.)

- (12절) 그러자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εἶπον οὖν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ῷ·)  
주여! 만약 그가 잠들었다면, 회복될(구원될) 것입니다(κύριε, εἰ κεκοίμηται σωθήσεται.)
- (13절)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εἰρήκει δὲ ὁ Ἰησοῦς περὶ τοῦ θανάτου αὐτοῦ.)  
그러나 그들은 그가 잠들어 쉬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ἐκεῖνοι δὲ ἔδοξαν ὅτι περὶ τῆς κοιμήσεως τοῦ ὕπνου λέγει.)
- (14절)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τότε οὖν εἶπε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παρηρησία·)  
나사르가 죽었다(Νάζαρος ἀπέθανεν.)
- (15절) 그리고 나는 너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서 너희로 인해 기쁘다(καὶ χαίρο δι' ὑμᾶς ἵνα πιστεῦσητε.)  
너희가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ὅτι οὐκ ἦμην ἐκεῖ·)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에게로 인도한다(ἀλλὰ ἄγωμεν πρὸς αὐτόν.)
- (16절) 그러자 디두모라고 불리우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Θωμαῖς ὁ λεγόμενος Δίδυμος τοῖς συμμαθηταῖς·)  
우리도 그와 함께 죽기 위해 올라가자(ἄγωμεν καὶ ἡμεῖς ἵνα ἀποθάνωμεν μετ' αὐτοῦ.)

## 하나님 말씀 해석하기

12-13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친구 나사르가 잠들었다. 그러나 그를 깨우기 위해 내가 간다” (11 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주여! 만약 그가 잠들었다면 회복될(구원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에서 우리는 당시 제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짐작할 수 있고 죽음에 대한 그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제자들의 심리적 상태는 매우 불안하고 두려움에 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을 몹시 두려워했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베다니로 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수전절 축제 때 예수님이 하신 발언을 문제삼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10:31~33 참조). 이로 인해 예수님 일행은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변이 걱정돼서 나사르가 가는 베다니로 가는 것을 꺼려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신변을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에게까지 화가 미치는 것을 우려해서 더 이상 그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고 사건이 잠잠해질 때까지 당분간 유대에 올라가지 않고 숨어지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마음과는 달리 갑자기 나사르가 죽는 문제가 생겨 예수님이 그곳으로 올라가시겠다고 하니 이들은 “그가 잠들었으면 회복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내심 올라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제자들의 태도는 한마디로 비겁하다고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남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유대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현실과 타협하거나 혹은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마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런 현상은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나타났던 문제입니다. 로마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였지만 또 다른 많은 이들은 순교가 두려워 전전공공하다가 결국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떠나기도 했고 그 중에는 드러내 놓고 배교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운가요? 그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있나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카멜레온처럼 살고 있지는 않

은지요? 배교란 단순히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배교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마10:32-33).

당신은 어떠한가요? 스스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자랑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진 앞더라도 소극적으로나마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꺼리고 있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러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12 절에서 그 당시 죽음에 대한 제자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의 친구나 사료가 잠들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 곧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속으로 ‘잘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죽음은 육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생각은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을 이 세상과 단절되어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죽음에 대한 이 같은 이해도 당시 유대인들 모두가 믿고 있던 보편적 세계관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막강한 정치적,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두개인들은 죽음은 곧 영혼의 소멸이라고 믿었습니다. 육체와 함께 영혼도 소멸된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에겐 이 세상이 전부이며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제자들의 세계관은 이런 사두개인들의 세계관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초대 교회 당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죽음과 부활에 대해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되어 천국으로 가기에 더 이상 육체, 즉 물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상이 교회 내에서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생각들은 영지주의 등 이단 세력으로 발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사역 후반기에 이미 이러한 사상들이 나타나 그리스도인들을 어지럽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잘못된 사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요일 4:1-3).

그 당시 인간들은 육체를 ‘더럽고 추한 것’이라고 규정하여 죄악시 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더럽고 추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왔을 리가 없다는 주장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영이시며 이 땅에서 잠시 인간의 육체를 빌렸을 뿐이므로 그 육신을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같은 주장들은 매우 설득력을 얻어 3세기에 이르러서는 교회 내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에 동조하고 따랐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주장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게 위해 고안해낸 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등장한 철학들이요 신앙 체계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적그리스도’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을 모방한 가짜 구세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즉,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이처럼 죽음에 대해, 부활에 대해, 영생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정말 모든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이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씀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늘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너희로 인해 기쁘다 (월요일)

### 오늘의 본문 (요 11:7~16)

7.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 두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고로 실족하느니라
11.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2.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낮겠나이다 하더라
13.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14.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16.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 원문해석하기

-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ἔπειτα μετὰ τοῦτο λέγει τοῖς μαθηταῖς·)  
우리가 다시 유대로 올라가자 (ἄγωμεν εἰς τὴν Ἰουδαίαν πόλιν.)
- (8절)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ουσιν αὐτῷ οἱ μαθηταί·)  
랍비여!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당신을 돌로치기 위해 찾았습니다  
(ῥαββί, νῦν ἐζήτουν σε λιθάσαι οἱ Ἰουδαῖοι.)  
그런데 당신은 그곳으로 다시 가시려하십니까? (καὶ πόλιν ὑπάγεις ἐκεῖ.)
- (9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하루가 열두 시간이 아니냐? (οὐχὶ δώδεκα ὥραί εἰσιν τῆς ἡμέρας·)  
만약 어떤 이가 낮 동안 다닌다면 (ἐάν τις περιπατῇ ἐν τῇ ἡμέρᾳ·)  
그는 넘어지지 않는다 (οὐ προσκόπτει.)  
왜냐하면 그가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다 (ὅτι τὸ φῶς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 βλέπει.)
- (10절) 만약 어떤 이가 밤 동안 다닌다면 (ἐάν δέ τις περιπατῇ ἐν τῇ νυκτί·)  
그는 넘어진다 (προσκόπτει.)  
왜냐하면 그 빛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ὅτι τὸ φῶς οὐκ ἔστιν ἐν αὐτῷ.)
- (11절) 그는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Ταῦτα εἶπεν, καὶ μετὰ τοῦτο λέγει αὐτοῖς·)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Λάζαρος ὁ φίλος ἡμῶν κεκοίμηται·)  
그러나 그를 깨우기 위해 내가 간다 (ἀλλὰ πορεύομαι ἵνα ἐξυπνίσω αὐτόν.)

- (12절) 그러자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εἶπον οὖν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ῷ·)  
주여! 만약 그가 잠들었다면, 회복될(구원될) 것입니다(κύριε, εἰ κεκοίμηται σωθήσεται.)
- (13절)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εἰρήκει δὲ ὁ Ἰησοῦς περὶ τοῦ θανάτου αὐτοῦ,)  
그러나 그들은 그가 잠들어 쉬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ἐκεῖνοι δὲ ἔδοξαν ὅτι περὶ τῆς κοιμήσεως τοῦ ὕπνου λέγει.)
- (14절)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τότε οὖν εἶπε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παρηρησία·)  
나사로가 죽었다(Νάζαρος ἀπέθανεν,)
- (15절) 그리고 나는 너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서 너희로 인해 기쁘다(καὶ χαίρο δι' ὑμᾶς ἵνα πιστεῦσητε.)  
너희가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ὅτι οὐκ ἦμην ἐκεῖ·)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에게로 인도한다(ἀλλὰ ἄγωμεν πρὸς αὐτόν.)
- (16절) 그러자 디두모라고 불리우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Θωμαῖς ὁ λεγόμενος Δίδυμος τοῖς συμμαθηταῖς·)  
우리도 그와 함께 죽기 위해 올라가자(ἄγωμεν καὶ ἡμεῖς ἵνα ἀποθάνωμεν μετ' αὐτοῦ.)

## 하나님 말씀 해석하기

14 절을 읽으십시오.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시 잠들어 쉬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사로의 상태를 알려 주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말을 바꾸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느 말이 옳은가요? 우리의 세계관에서는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금방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죽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세계관, 즉,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죽음’=‘잠’이라는 명제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잠이란 생명은 있으나 활동을 잠시 중지하고 휴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편한 ‘침’의 형태이지요. 예수님은 믿는 자의 죽음을 ‘침’, ‘잠’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람들을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순교한 사람들로 인해 걱정하고 있던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sup>13</sup>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sup>14</sup>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sup>15</sup>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sup>16</sup>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sup>17</sup>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sup>18</sup>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3-18).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자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썩지 않을 부활의 새몸으로 다시 살리실 때까지 주안에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



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에까지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절대 진리가 아닌 다른 어느 종교와 다름없는 하나의 종교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선언했습니다.

“<sup>13</sup>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sup>14</sup>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sup>15</sup>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sup>16</sup>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sup>17</sup>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sup>18</sup>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sup>19</sup>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전15:13-19).

이처럼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연연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욕심을 내려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 부인양아등바등대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안그런 척 하지만 속은 온통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하나님의 신앙보다 위에 놓은 지는 오래되었고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처세술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대신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라는 말은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하나님은 없고 오로지 인간들의 영광을 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더라도 이 땅에서 살면서 결코 손해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신은 어떠한가요? 돈, 명예, 건강, 자식 등에 대한 자신의 세계관은 어떠한지를 생각해보고 솔직하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서 너희로 인해 기쁘다. 너희가 거기에 있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를 그에게로 인도한다.” 이 말씀은 여러 번을 읽어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난해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로 인해 기쁘다.” (χαίρω δι' ὑμᾶς, 카이로 디 후마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기쁨의 원인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존재들이고 무엇을 했길래 그들로 인해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사로가 죽을 때 거기 함께 있지 않았지만 이제 그에게로 제자들을 인도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해석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고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어떤 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면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을 자신의 공생애 기간 동안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지요.

16절을 읽으십시오. 그러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불쑥 말을 꺼냅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올라가자!” 예수님은 부활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믿음을 주기 위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고, 이제 시간이 되어 함께 가자고 말하는데 그때 도마가 던진 말이 바로 자기들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것

이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도마의 믿음 없음이나 무모함을 보여주는 말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리 간단하게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유대로 올라가면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마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죽자!’ 또는 ‘나사로처럼 우리도 죽자!’라며 동료들을 격려하고 흔쾌히 같이 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도마는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을 목격하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까지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입니다. 사실 도마라는 인물은 다른 복음서에는 열두 제자 명단에만 등장할 뿐 제자로서 별로 활약이 두드러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요한만큼은 도마를 주목하고 있었으며 요한복음에는 도마의 발언이 비교적 자주 등장합니다. 그는 종종 믿음이 없는 현실주의자이며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폄하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가 제기한 합리적 의심을 통해 요한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과연 가능한가?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영생을 주는 인간이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영생을 주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요한은 이처럼 가장 중요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합리적 회의론자인 도마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맹목적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솔직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도마는 이런 합리적 회의를 통해 마침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지니이다”(요20:28). 당신은 어떻습니까? 진실로 예수님이 당신의 주시며 하나님이신가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죽은지 나흘이 된 나사로 (화요일)

### 오늘의 본문 (요11:17~27)

17.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18.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 리쯤 되매
19.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20.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아나이다
23.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4.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27.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 원문해석하기

- (17절)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Ἐλθὼν οὖν ὁ Ἰησοῦς)  
예수님이 그를 발견하셨습니다 (εὗρεν αὐτὸν)  
이미 4일 동안 무덤 안에 있는 (τέσσαρας ἤδη ἡμέρας ἔχοντα ἐν τῷ μνημείῳ.)
-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ἦν δὲ ἡ Βηθανία ἐγγὺς τῶν Ἱεροσολύμων)  
거의 15스타디온 (약 3Km) 떨어진 [곳에] (ὡς ἀπὸ σταδίων δεκαπέντε.)
- (19절)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πολλοὶ δὲ ἐκ τῶν Ἰουδαίων ἐληλύθεισαν πρὸς τὴν Μάρθαν καὶ Μαριάμ)  
그녀들의 오라비에 대해 그녀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ἵνα παραμυθῆσονται αὐτὰς περὶ τοῦ ἀδελφοῦ.)
- (20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ἡ οὖν Μάρθα ὡς ἤκουσεν ὅτι Ἰησοῦς ἔρχεται ὑπήντησεν αὐτῷ.)  
그러나 마리아는 그의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Μαριάμ δὲ ἐν τῷ οἴκῳ ἐκαθίζετο.)
- (21절)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ἡ Μάρθα πρὸς τὸν Ἰησοῦν.)  
주여! 만약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κύριε, εἰ ἦς ὧδε οὐκ ἂν ἀπέθανεν ὁ ἀδελφός μου.)
- (22절) [그러나] 저는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ἀλλὰ] καὶ νῦν οἶδα ὅτι ὅσα ἂν αἰτήσῃ τὸν θεὸν δώσει σοὶ ὁ θεός.)
- (23절)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ὁ Ἰησοῦς.)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ἀναστήσεται ὁ ἀδελφός σου.)
- (24절) 마르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ἡ Μάρθα.)  
제가 부활의 날 [곧] 마지막날에 그가 다시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οἶδα ὅτι ἀναστήσεται ἐν τῇ ἀναστάσει ἐν τῇ ἐσχάτῃ ἡμέρᾳ.)

- (25절)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αὐτῇ ὁ Ἰησοῦς·)  
 그 부활과 그 생명이 [바로] 나다 (ἐγὼ εἰμι ἡ ἀνάστασις καὶ ἡ ζωή·)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만약 죽어도 살아나겠고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ὲ κἂν ἀποθάνῃ ζήσεται.)
- (26절) 살아 있어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καὶ πῶς ὁ ζῶν καὶ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ὲ οὐ μὴ ἀποθάνῃ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네가 이것을 믿느냐? (πιστεύεις τοῦτο;)
- (27절)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그렇습니다 주님 (ναὶ κύριε.)  
 저는 믿어왔습니다 (ἐγὼ πεπίστευκα)  
 당신이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ὅτι σὺ εἶ ὁ χριστὸς ὁ υἱὸς τοῦ θεοῦ ὁ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ἐρχόμενος.)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7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에 들어간 지나홀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도 이틀이나 지체한데다 예수님이 그동안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서 유대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가 죽었음을 알고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오는 동안 시간이 이만큼 흘러 버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지체하신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에 관해 우리는 세 가지 시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당시의 상황에서, 둘째는 주후 50여년이 지난 후 요한이 이 글을 썼던 당시의 크리스찬 공동체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각각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나홀(4일)이 지난 후에야 베다니에 도착하셨을까요? 또한 이런 더듬이 이 글을 읽던 최초의 독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서로 다른 시점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지만 반드시 동일한 결론을 얻어야 합니다. 당시의 컨텍스트나 저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문자 그대로 자기 삶에 적용하는 식의 성경 해석은 자신의 귀에는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이니까요. 그러한 성경 해석 방식을 흔히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해석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뒤에 왜 나홀이라는 시간을 흘러 보냈을까요? 먼저 그 당시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랍비 전통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죽은 자기 시신 주변을 3일 동안 떠돌다가 4일 췌가 되어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자기 몸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시신을 영구히 떠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D.A. Carson, 411). 결국 나홀이 지나면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그 누구의 힘으로도 나사로의 영혼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는 당시 랍비들의 생각이며 그런 인식이 유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다는 것이 전혀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말은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의 주장처럼 인간들이 완전히 소망의 끈을 놓을 때까지 예수님이 일부러 기다리셨다고 단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개연성이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고의로 시간을 지체하셨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도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 내셨기에 결국은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은 준 것만은 확실합니다.

다음으로는 열두 사도 중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을 견디며 살아가던 사도 요한과 1세기 후반의 크리스천 공동체는 이렇듯 나흘이나 지체하신 예수님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였을까요?

아시다시피 기독교를 제일 먼저 핍박한 주체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인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도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교회 내 유대주의자들이 같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초대 교회 당시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유대 종파 중의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60년대 중반 네로 황제 때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는 기독교와 로마 제국 사이는 늘 긴장이 흘렀습니다. 이후 도미시안 황제 (AD. 81~96) 때 이르러 자신을 신격화하는데 걸림돌이 된 기독교를 말살하려 들었고, 그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한 분만을 주로 고백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온갖 핍박을 당했는데 이런 사실은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sup>42</sup>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sup>43</sup>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sup>44</sup>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sup>45</sup>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sup>46</sup>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벧전 4:12-16).

히브리서 저자는 로마에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예시하는 글로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sup>43</sup>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sup>44</sup>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sup>45</sup>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sup>46</sup>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sup>47</sup> 돌로 치는 것과 툽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sup>48</sup>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sup>49</sup>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sup>50</sup>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 11:33-40).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서 쓴 그의 마지막 편지인 계시록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 22:20-21).

이처럼 죽음으로 믿음을 지켜 낸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곧 오시겠다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나타난 예수님은 야속한 분으로 여겨졌을까요? 아니면 절망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분이었을까요? 그들은 늘 이런 기도를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마라나타’(μαράναθά)(고전 16:22)!

마지막으로 21세기에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종교 자유가 허용된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일이 어떻게 다가오나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은 그들이 직접 본 적도 없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아니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예루살렘에서 문상 온 유대인들 (수요일)

### 오늘의 본문 (요11:17~27)

17.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홀이라
18.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 리쯤 되매
19.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20.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아나이다
23.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4.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27.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 원문해석하기

- (17절)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Ἐλθὼν οὖν ὁ Ἰησοῦς)  
예수님이 그를 발견하셨습니다 (εὗρεν αὐτὸν)  
이미 4일동안 무덤 안에 있는 (τέσσαρας ἡδὴ ἡμέρας ἔχοντα ἐν τῷ μνημείῳ.)
-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ἦν δὲ ἡ Βηθανία ἐγγύς τῶν Ἱεροσολύμων)  
거의 15스타디온 (약 3Km) 떨어진 [곳에] (ὡς ἀπὸ σταδίων δεκαπέντε.)
- (19절)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πολλοὶ δὲ ἐκ τῶν Ἰουδαίων ἐληλύθεισαν πρὸς τὴν Μάρθαν καὶ Μαριάμ)  
그녀들의 오라비에 대해 그녀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ἵνα παραμυθίσωνται αὐτὰς περὶ τοῦ ἀδελφοῦ.)
- (20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ἡ οὖν Μάρθα ὡς ἤκουσεν ὅτι Ἰησοῦς ἔρχεται ὑπήντησεν αὐτῷ.)  
그러나 마리아는 그의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Μαριάμ δὲ ἐν τῷ οἴκῳ ἐκαθίζετο.)
- (21절)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ἡ Μάρθα πρὸς τὸν Ἰησοῦν.)  
주여! 만약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κύριε, εἰ ἦς ὧδε οὐκ ἂν ἀπέθανεν ὁ ἀδελφός μου.)
- (22절) [그러나] 저는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ἀλλὰ] καὶ νῦν οἶδα ὅτι ὅσα ἂν αἰτήσῃ τὸν θεὸν δώσει σοὶ ὁ θεός.)
- (23절)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ὁ Ἰησοῦς.)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ἀναστήσεται ὁ ἀδελφός σου.)
- (24절) 마르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ἡ Μάρθα.)  
제가 부활의 날 [곧] 마지막날에 그가 다시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οἶδα ὅτι ἀναστήσεται ἐν τῇ ἀναστάσει ἐν τῇ ἐσχάτῃ ἡμέρᾳ.)

- (25절)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αὐτῇ ὁ Ἰησοῦς·)  
 그 부활과 그 생명이 [바로] 나다 (ἐγὼ εἰμι ἡ ἀνάστασις καὶ ἡ ζωή·)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만약 죽어도 살아나겠고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ὲ κἂν ἀποθάνῃ ζήσεται.)
- (26절) 살아 있어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καὶ πᾶς ὁ ζῶν καὶ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ὲ οὐ μὴ ἀποθάνῃ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네가 이것을 믿느냐? (πιστεύεις τούτου·)
- (27절)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그렇습니다 주님 (ναὶ κύριε.)  
 저는 믿어왔습니다 (ἐγὼ πεπίστευκα)  
 당신이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ὅτι σὺ εἶ ὁ χριστὸς ὁ υἱὸς τοῦ θεοῦ ὁ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ἐρχόμενος.)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8-19절을 읽으십시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문상하기 위해 왔습니다. 여기서 저자인 사도 요한은 베다니의 위치를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친절하게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런 친절한 정보는 19절의 내용과 결합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상을 당한 상가집에 위로차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무심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리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베다니는 작은 마을이었기에 문상객들의 대부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왔을까요? 단순히 그들 모두가 나사로의 집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요한이 굳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위치했다고 기록할 필요도 없었을 테니까요. 따라서 이 대목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의 관계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고 이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자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사로 집안은 매우 특별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본래 나사로를 비롯한 삼남매를 끔찍하게 아꼈습니다 (11:5참조).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관계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도 이미 잘 알고 있을테니 당연히 이들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틈을 이용해 문상을 온 유대인들 중 몇몇은 사실상 예루살렘의 종교지도자들이 보낸 스파이였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보고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계기를 만듭니다 (11:46-53참조).

둘째, 예루살렘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광경을 본 목격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부활을 목격했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시작될 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설명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점점 십자가를 향해 가서 마침내 그곳에서 피를 흘리시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유월절 그날 밤을 향해 가고 있고, 공간적으로는 예루살렘의 골고다를 향해 전진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3km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의 실제 거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예수님이 곧 자신이 죽게 될 골고다에 매우 가까이 계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죽음 사이는 단 3km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0절을 읽으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갔으나 마리아는 그의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엔 마리아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다. 사실 성경의 여러 부분을 종합해 보면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존중하고 사랑했으며 믿음이 더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다. 실제로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급히 일어나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다 (28-29절 참조). 왜 마리아는 집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오지 않았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21-22절을 읽으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여! 만약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예수님과 대화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마르다의 신앙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르다의 말만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유대를 떠나 광야로 가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마르다의 집에 머물러 계셨더라면, 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곳에 오셨더라면 이렇듯 그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깊은 유감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 하나하나를 볼 때 단순히 문자적 해석에만 그친다거나 또는 말하는 사람의 심정에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믿는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 시점에 과연 그들은 마르다의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였을까요? 오라비 나사로가 그토록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이들 자매는 예수님의 부재를 뼈저리게 체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전절에 오셔서 그때부터 줄곧 베다니에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치유되었을 것이고 이렇게 슬픈 현실을 당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또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오셨더라면 죽음을 맞볼 필요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마음 깊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땅에 머물러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더라면 또는 속히 다시 오시겠다고 떠난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일찍 재림하셨다면 이렇게 많은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필요도 없고 모두가 주 안에서 고통도 눈물도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을텐데...’

하지만 이러한 마르다의 입을 통해 그들은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미 오라비 나사로는 죽었고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기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한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읽고 마르다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선불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뒤이은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살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적어 보십시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부활의 이론과 실제... (목요일)

### 오늘의 본문 (요11:17~27)

17.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홀이라
18.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 리쯤 되매
19.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20.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아나이다
23.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4.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27.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 원문해석하기

- (17절)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Ἐλθὼν οὖν ὁ Ἰησοῦς)  
예수님이 그를 발견하셨습니다 (εὗρεν αὐτὸν)  
이미 4일동안 무덤 안에 있는 (τέσσαρας ἡδὴ ἡμέρας ἔχοντα ἐν τῷ μνημείῳ.)
-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ἦν δὲ ἡ Βηθανία ἐγγὺς τῶν Ἱεροσολύμων)  
거의 15스타디온 (약 3Km) 떨어진 [곳에] (ὡς ἀπὸ σταδίων δεκαπέντε.)
- (19절) 유대인들중 많은 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πολλοὶ δὲ ἐκ τῶν Ἰουδαίων ἐληλύθεισαν  
πρὸς τὴν Μάρθαν καὶ Μαριάμ)  
그녀들의 오라비에 대해 그녀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ἵνα παραμυθῆσονται αὐτὰς περὶ τοῦ ἀδελφοῦ.)
- (20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ἡ οὖν Μάρθα ὡς ἤκουσεν ὅτι Ἰησοῦς  
ἔρχεται ὑπήντησεν αὐτῷ.)  
그러나 마리아는 그의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Μαριάμ δὲ ἐν τῷ οἴκῳ ἐκαθίζετο.)
- (21절)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ἡ Μάρθα πρὸς τὸν Ἰησοῦν.)  
주여! 만약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κύριε, εἰ ἦς ὧδε οὐκ  
ἂν ἀπέθανεν ὁ ἀδελφός μου.)
- (22절) [그러나] 저는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ἀλλὰ] καὶ νῦν οἶδα ὅτι ὅσα ἂν αἰτήσῃ τὸν θεὸν δώσει σοὶ ὁ θεός.)
- (23절)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ὁ Ἰησοῦς.)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ἀναστήσεται ὁ ἀδελφός σου.)
- (24절) 마르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ἡ Μάρθα.)  
제가 부활의 날 [곧] 마지막날에 그가 다시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οἶδα ὅτι ἀναστήσεται ἐν τῇ ἀναστάσει ἐν τῇ ἐσχάτῃ ἡμέρᾳ.)

- (25절)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αὐτῇ ὁ Ἰησοῦς)  
 그 부활과 그 생명이 [바로] 나다 (ἐγὼ εἰμι ἡ ἀνάστασις καὶ ἡ ζωή·)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만약 죽어도 살아나겠고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ὲ κἂν ἀποθάνῃ ζήσεται.)
- (26절) 살아 있어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καὶ πᾶς ὁ ζῶν καὶ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ὲ οὐ μὴ ἀποθάνῃ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네가 이것을 믿느냐? (πιστεύεις τοῦτο;)
- (27절)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그렇습니다 주님 (ναὶ κύριε.)  
 저는 믿어왔습니다 (ἐγὼ πεπίστευκα)  
 당신이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ὅτι σὺ εἶ ὁ χριστὸς ὁ υἱὸς τοῦ θεοῦ ὁ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ἐρχόμενος.)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3절을 읽으십시오. 마르다의 이야기에 예수님은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아주 짧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살아나다’로 번역한 ‘아나스테세타이’(ἀναστήσεται)는 ‘안히스테미’(ἀνίστημι)의 3인칭 단수 미래시제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일어서다’ ‘위를 향해서다’라는 의미로 았았다 일어날 때에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유독 ‘안히스테미’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부활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24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즉각 반응합니다. “제가 부활의 날 [곧] 마지막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자 그 미래를 ‘부활의 날’= ‘마지막 날’로 이해하고 반응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으켜 질 그때에 나사로도 다시 부활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이지요. 그러한 마르다의 생각은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신앙관 중의 하나이고 3대 유대종파 (바리새, 사두개, 에센) 중에 사두개파를 제외한 두 종파는 이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에센파는 종말에 대한 강한 기대 (eschatological expectation)를 갖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시는 그 때가 바로 종말이고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마르다의 이러한 말은 당시의 믿음을 반영한 당연하고 기계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요한을 비롯하여 동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체가 동일하게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 다시 개입하시는 그날 모든 고통, 슬픔, 심지어 죽음까지도 극복되고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은 온전히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기대는 오늘날의 우리들처럼 막연한 기대감 또는 불필요한 집착이 아닌 매우 구체적인 것이었으며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부활에 대한 소망은 막연한 기대이며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기에 현재를 살아가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긴절함은 사라지고 현실에 파묻혀서 세상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꿈을 꾸고 똑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장례식장에서나 잠시 떠 올리는 주제로 바뀌어 버렸지요. 그러나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에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활에 대한 기대 또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늘 일어나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고 다시 사는 문제에 대해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sup>2</sup>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sup>3</sup>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sup>4</sup>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sup>5</sup>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sup>6</sup>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sup>7</sup>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sup>8</sup>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sup>9</sup>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sup>10</sup>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sup>11</sup>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롬 6:1-11).

사도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믿는 자의 부활은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이며 추상적 관념의 문제가 아닌 실존의 문제입니다. 이 부활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감사하는 정도의 신앙 수준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다름아닌 나 자신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나의 모든 옛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 부활의 몸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새롭게 된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이 말씀대로 우리가 부활된 몸이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의 것들과는 분리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부활을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부활은 실질적인 세계관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혹 신앙이 이론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아 자신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새로운 피조물로 적합한 생각을 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은 디도에 보내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sup>11</sup>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sup>12</sup>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sup>13</sup>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sup>14</sup>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딤후 2:11-14).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돌아 보십시오. 부활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실제입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금요일)

### 오늘의 본문 (요11:17~27)

17.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홀이라
18.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 리쯤 되매
19.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20.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아나이다
23.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4.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27.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 원문해석하기

- (17절)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Ἐλθὼν οὖν ὁ Ἰησοῦς)  
예수님이 그를 발견하셨습니다 (εὗρεν αὐτὸν)  
이미 4일동안 무덤 안에 있는 (τέσσαρας ἤδη ἡμέρας ἔχοντα ἐν τῷ μνημείῳ.)
-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ἦν δὲ ἡ Βηθανία ἐγγύς τῶν Ἱεροσολύμων)  
거의 15스타디온 (약 3Km) 떨어진 [곳에] (ὡς ἀπὸ σταδίων δεκαπέντε.)
- (19절) 유대인들중 많은 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πολλοὶ δὲ ἐκ τῶν Ἰουδαίων ἐληλύθεισαν πρὸς τὴν Μάρθαν καὶ Μαριάμ)  
그녀들의 오라비에 대해 그녀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ἵνα παραμυθίσωνται αὐτὰς περὶ τοῦ ἀδελφοῦ.)
- (20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ἡ οὖν Μάρθα ὡς ἤκουσεν ὅτι Ἰησοῦς ἔρχεται ὑπήντησεν αὐτῷ.)  
그러나 마리아는 그의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Μαριάμ δὲ ἐν τῷ οἴκῳ ἐκαθίστο.)
- (21절)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ἡ Μάρθα πρὸς τὸν Ἰησοῦν.)  
주여! 만약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κύριε, εἰ ἦς ὧδε οὐκ ἂν ἀπέθανεν ὁ ἀδελφός μου.)
- (22절) [그러나] 저는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ἀλλὰ] καὶ νῦν οἶδα ὅτι ὅσα ἂν αἰτήσῃ τὸν θεὸν δώσει σοὶ ὁ θεός.)
- (23절)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ὁ Ἰησοῦς.)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ἀναστήσεται ὁ ἀδελφός σου.)
- (24절) 마르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ἡ Μάρθα.)  
제가 부활의 날 [곧] 마지막날에 그가 다시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οἶδα ὅτι ἀναστήσεται ἐν τῇ ἀναστάσει ἐν τῇ ἐσχάτῃ ἡμέρᾳ.)

- (25절)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αὐτῇ ὁ Ἰησοῦς)  
 그 부활과 그 생명이 [바로] 나다 (ἐγὼ εἰμι ἡ ἀνάστασις καὶ ἡ ζωή·)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만약 죽어도 살아나겠고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ὲ κἂν ἀποθάνῃ ζήσεται.)
- (26절) 살아 있어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καὶ πῶς ὁ ζῶν καὶ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ὲ οὐ μὴ ἀποθάνῃ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네가 이것을 믿느냐? (πιστεύεις τοῦτο;)
- (27절)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그렇습니다 주님 (ναὶ κύριε.)  
 저는 믿어왔습니다 (ἐγὼ πεπίστευκα)  
 당신이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ὅτι σὺ εἶ ὁ χριστὸς ὁ υἱὸς τοῦ θεοῦ ὁ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ἐρχόμενος.)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5-26절을 읽으십시오. 마르다가 미래의 어느 순간 종말이 이르렀을 때 나사로가 부활 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대뜸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과 그 생명이 [바로] 나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만약 죽어도 살아나겠고, 살아 있어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에고에이미’ (ἐγὼ εἰμι)라는 단어로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원래대로 해석하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수많은 번역에서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정관사를 생략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생명’ ‘바로 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시 사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념조차 없이 그저 막연히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종말이라는 것을 시간의 개념과 부활이라는 실질적 변화의 개념, 즉 예수님 자신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오심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종말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오심이 부활의 시작이고 그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어떻게 이 세상의 종말이고 천국의 시작일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외침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와왔느니라”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이 이미 도래했으며 회개를 통해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sup>22</sup>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sup>23</sup>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sup>24</sup>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



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sup>25</sup>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sup>26</sup>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sup>27</sup>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sup>28</sup>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히 9:22-28).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오심 자체를 세상 끝날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란 천국이 도래하는 시기이며 그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이 옴으로써 천국이 각 사람에게 침노해 들어간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마11:12).

“<sup>20</sup>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sup>21</sup>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0-21).

결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미 심판하셨고 세상의 모든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들은 죽음을 주관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죽음 앞에서 벌벌 떨게 만든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김으로써 더 이상 죽음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영생으로의 진입을 의미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택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까지 우리에게 보이는 이 세상은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눈에 어정쩡하게 보이는 상태를 흔히들 말하는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사이를 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앞의 히브리서 예를 보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그 세상 끝이 ‘이미’이고 두 번째 나타나시기 전까지가 흔히 말하는 ‘아직’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선언하신 후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누누히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 내 안에 있는 신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부활이고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네 앞에서 있는 나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라는 사실,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에게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외부에서 나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그것들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신비한 연합, 즉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그 존재적 자각과 실질적 체험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27절을 읽으십시오. 마르다가 예수님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 왔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현재형(πιστεύεις, 피스테우에이스)으로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믿어 왔습니다”(πεπίστευκα, 페피스테우카)라고 완료형으로 대답합니다. 완료형이란 과거로부터 지

금까지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과연 그녀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었을까요?

39절을 보면 그녀의 생각은 아직도 자신이 이해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자 마르다는 죽은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녀가 지금까지 믿어 온 것은 마지막 날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막연한 믿음이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것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믿음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고 이미 내안에 영생이 있고 부활이 도래했음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먼 미래의 어떤 일로 여기고 있나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토요일)

### 오늘의 본문 (요11:28~37)

28.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30.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31.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2.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앞에 엎드리어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33.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34.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37. 그 중 어떤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 원문해석하기

- (28절) 그리고 이 말을 한 후 (Καὶ τοῦτο εἶποῦσα)  
그녀는 떠나서 그의 자매 마리아를 불러 비밀스럽게 말했습니다  
(ἀπῆλθεν καὶ ἐρώνησεν Μαριάμ τὴν ἀδελφὴν αὐτῆς λάθρᾳ εἶποῦσα·)  
선생님이 도착하셔서 너를 부르다 (ὁ διδάσκαλος πάρεστιν καὶ φωνεῖ σε.)
- (29절) 그리고 그녀가 이것을 듣자마자 (ἐκείνη δὲ ὡς ἤκουσεν)  
급히 일어나게 되어 그에게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ἠγέρθη ταχὺ καὶ ἦρχετο πρὸς αὐτόν.)
- (30절) 예수님은 아직 그 마을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았습시다 (οὐπω δὲ ἐληλύθει ὁ Ἰησοῦς εἰς τὴν κώμην.)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마르다가 그를 만나던 그 장소에 계셨습니다  
(ἀλλ' ἦν ἔτι ἐν τῷ τόπῳ ὅπου ὑπῆντησεν αὐτῷ ἡ Μάρθα.)
- (31절) 그런데 그녀와 함께 집에 있어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οἱ οὖν Ἰουδαῖοι οἱ ὄντες μετ' αὐτῆς ἐν τῇ οἰκίᾳ καὶ παραμυθούμενοι αὐτήν.)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ιδόντες τὴν Μαριάμ ὅτι ταχέως ἀνέστη καὶ ἐξῆλθεν.)  
그녀가 울기 위해 무덤으로 떠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를 따라 나섰습시다  
(ἠκολούθησαν αὐτῇ δόξαντες ὅτι ὑπάγει εἰς τὸ μνημεῖον ἵνα κλαύσῃ ἐκεῖ.)
- (32절)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그를 보았고 그의 발을 향해 엎드리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Ἡ οὖν Μαριάμ ὡς ἦλθεν ὅπου ἦν Ἰησοῦς ἰδοῦσα αὐτόν ἔπεσεν αὐτοῦ πρὸς τοὺς πόδας λέγουσα αὐτῷ·)  
주여 만약 당신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κύριε, εἰ ἦς ὧδε οὐκ ἂν μου ἀπέθανεν ὁ ἀδελφός.)

- (33절) 그런데 예수께서 울고 있는 그녀와 그녀와 함께 울고있는 유대인들을 보시고는 (Ἰησοῦς οὖν ὡς εἶδεν αὐτὴν κλαίουσαν καὶ τοὺς συνελθόντας αὐτῇ Ἰουδαίους κλαίοντας)  
 그 심령으로 통분히 여기시고 그 스스로가 힘들어 하셨습니다  
 (ἐνεβριμήσατο τῷ πνεύματι καὶ ἐτάραξεν ἑαυτὸν)
- (34절)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καὶ εἶπεν·)  
 당신들이 그를 어디에 두었소? (ποῦ θεθείκατε αὐτόν·)  
 그들이 말하기를 (λέγουσιν αὐτῷ·)  
 주여 가서 보시지요 (κύριε, ἔρχου καὶ ἴδε.)
- (35절)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ἐδάκρυσεν ὁ Ἰησοῦς.)
- (36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ἔλεγο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보라 그가 어떻게 그를 사랑하셨는지를 (ἴδε πῶς ἐφίλει αὐτόν·)
- (37절)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τινὲς δὲ ἐξ αὐτῶν εἶπαν·)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능력이 있는 그가 그[나사로]를 죽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셨느냐?  
 (οὐκ ἐδύνατο οὗτος ὁ ἀνοίξας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τοῦ τυφλοῦ ποιῆσαι ἵνα καὶ οὗτος μὴ ἀποθάνῃ·)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8~30절을 읽으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께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 왔습니다”라고 말을 한 후 예수님 곁을 떠나 마리아를 불러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너를 부른다고 비밀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 않고 마르다를 만났던 자리에 계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독자들은 배경 설명에 사용한 단어들, 부사들, 정황을 설명하는 내용들에 주목하여 읽어야 합니다. 28절부터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되는 것이 ‘비밀스럽게’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는 수 많은 문상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는 서로 다른 종교적 견해를 지닌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예수님의 신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왜 마르다가 ‘비밀스럽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는다는 소식을 전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이를 통해 당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알려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적들이 도처에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르다는 “선생님이 도착하셔서 너를 부른다”라고 말을 전했는데 앞의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내용을 찾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마리아에 대한 언급을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굳이 마리아를 찾지 않았더라도 예수님과 그녀의 특별한 관계를 생각하면 당연히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끝나고 이제는 마리아와의 대화로 국면이 전환됩니다.

29-30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마리아는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29절의 개역한글 성경의 번역은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은 그녀가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일어나게 되어’ (ἠνέθητο ταχὺ), 에게르데 타쿠)로 번역됩니다. 몸을 ‘일으키다’라는 동사 ‘에게이로’ (ἐγείρω)의 에오리스트(aorist),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몸을 일으키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면 무언가에 홀린 듯한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어떤 힘에 이끌리는 모습이지요.

이런 그녀의 모습을 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오라비 나사로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빨리 이리로 오시기를 학수고대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오라비를 낫게 하려고 멀리 유대 광야에 계신 예수님께 전갈까지 보냈으나 감감 무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아마 예수님을 많이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심정은 가히 짐작할 만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수동태를 사용하여 마리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요한이 속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살았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앞에서 여러번 언급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재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날 이 글을 읽는 우리들은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끼거나 종말론적으로 간절히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요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느꼈을 그 심정으로 돌아가 그들과 공감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편지에는 그들이 홀린 피가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모습을 통해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간단하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31절을 읽으십시오. 마리아가 황급히 나가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은 그녀가 곡하러 무덤으로 가는 거라 생각하고는 그녀를 따라나섰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상황 묘사를 통해 매우 다양한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리아가 가려는 곳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인데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으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자신들이 해 오던 일상적인 것들을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죽음’이었고 ‘무덤’이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머리 속에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다른 것을 상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정상적인 독자라면 의문이 생겨야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당연히 무덤을 향해 가려고 한다고 믿었을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없고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이 없을까요? 사실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비밀리에 알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유대인들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진리가 가리워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공홀하심을 입은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sup>2</sup>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궤홀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sup>3</sup>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sup>4</sup>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후 4:14).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이 그들에게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그것을 진리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말씀을 혼합한 엉뚱한 것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인간들의 생각, 인간들의 교훈은 절대 진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비진리를 진리인양 믿고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